24년 9월 목회일정

8일(주일)	성찬가족심방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김태영목사)
29일(주일)	문화주일(성경으로 영화읽기)
2-3일	교회교육엑스포(총회교육원주최·포도원교회당)
10-13일	고신총회(천안 고려신학대학원)
2일(월)	노회SFC지도위원회(엘림교회당)
20일(금)	임원회 및 공천부모임(샘터교회당)
17일(화)	세속명절(한가위)

주간소식

환 영 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3.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김성재 이은수.
4. **성찬가족심방** /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성찬1조-고충석가정 2조-김용대가정 3조-김경이가정
   * 오후 8시 성찬조장모임이 영상으로 있습니다.
5. **고신총회** / 10일(화)-13일(금)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6. **목사동정** / 고신총회 참석(10-13일)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격주)
교회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9월	10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이경준	김낙형
안 내	김유니	최예지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개혁언론)
	파 서 교 회(고신, 강인종)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 성 연 화 교 회 (최 지 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9.08.(제28-36호)

주안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교회소식

개 회

* 예배에로의부름 ↑ ..... 애 3:22-23(교송)
  인도자 :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회 중 :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 축 복 의 인 사 ↓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 배 찬 송 ↑ ..... 찬송 5장(4)

죄의고백

* 십 계 명 봉 독 ↓ ..... 출20장(주계명/교독)
* 죄 의 공 적 고 백 ↑ ..... 제 5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 인도자
* 감 사 찬 송 ↑ ..... 시편22편(3-4)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 인도자
성 경 봉 독 ↓ ..... 삼하 6:1-12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24편
설 교 ↓ ..... 설교자

이스라엘의 참 왕, 야웨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 례 식 ↕ 필요시 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5장(2a-b)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 회 의 기 도 ↑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32장

폐 회

* 강 복 선 언 ↓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성찬가정심방

인 도 각 성찬조장
설교문 최성림 목사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찬540장(1,4)
기 도	성창조원 중
성 경 봉 독	고후4:7-11
말 씀 선 포	성찬조장대독

보배가 담긴 질그릇

목 적 헌 금	선교목적
찬 송	찬564장
주 기 도 문	다같이

성찬가정심방

1. 진행
1) 다과는 각 성찬조별로 자유롭게 준비합니다.
2) 심방가정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빨리 정돈을 합니다.
3) 심방가정에 공적심방 외의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 성찬가정심방
1) 심방기도회는 조장이 기도회 순서를 따라 진행합니다.
2) 드려진 [구제목적헌금]은 조장이 재정부에 전달합니다.
3) 심방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다 함께 조별사진을 찍습니다.
4) 먼저 당회가 제공하는 공적인 나눔으로 나눕니다.
5) 공적 나눔 이후에는 조장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6) 심방 가정과 참석자들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3. 정리
1) 마치고 흩어질 때는 조장의 기도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2) 마친 후 성찬보고서는 작성하여 담임목사에게 전송합니다.
3) 주일오후 8시 영상으로 진행하는 성찬조장 모임에서 그 날 기도회와 심방과 교제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삶]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수, 18:30)

인도 : 양주동 강도사
* 김해(월, 19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주간성경읽기

주일	암 1-3	고후 5
월	암 4-6	고후 6
화	암 7-9	고후 7
수	왕하16-17	고후 8
목	왕하18-19	고후 9
금	왕하20-21	고후 10
토	왕하22-23	고후 11

이야기성경

구	65.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
신	41.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이스라엘의 참 왕, 야웨)
1.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있기를
3. 결과와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목사)
1. 복음전파가 자유로운 우리나라에 찾아온 불교와 이슬람권 이주민 외국인근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2. 인구감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요즘 더 깊이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1. 우리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쉬지 않도록
2.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안위를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3. 성경이 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슬람인들 로마교인들이 생명의 주님을 알도록

예배의 삶을 위하여
1. 예배를 사모하며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자기일을 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생활되게
2. 예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예배 안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풍성한 복을 누리게
3. 성도들이 일상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드림으로서 삶이 영적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고후 4:7-11]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
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
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
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
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54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4. 우리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 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64. 예수께서 오실 때에
1.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2.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3.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후렴] 샛별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 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성찬모임나눔

1. 오늘 [성찬모임의 강론] 중에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1)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2)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어떻게)
3) 질그릇같은 내 속에 가장 보배롭고 가치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4)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두신 것을 나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5) 질그릇같은 내 속에 담기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가치가, 또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 것이 있나요?
6)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7) 나는 모든 생활 속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시나요?(어떻게 알 수 있나요?)
8) 어떻게 하면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릇이 될까요?

2 오늘 [오전 설교] 중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1) 다윗은 예루살렘 천도 후에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나요?
2)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던 언약궤를 왜 멈추게 하셨나요?
3) '웃사에게 당한 일'을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4)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5)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3.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생활 중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4. 8월에 있었던 연합수련회를 회상하며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5. 오늘 심방하는 가정을 위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을 담아둔다고 금그릇이 되거나, 오랫동안 보석을 담아 두면 세월이 지나 도자기가 되고, 청자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은 질그릇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릇의 주인이 가치없는 질그릇에 보석을 담는 순간 그 보석으로 인해 그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7b)** 곧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시는 순간 예전의 가치없는 내가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 아닌 엄청난 청자로 보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약하고 가치없는 그릇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는 왜 질그릇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아 주십니까?
바로 우리 속에 담아 두신 이 보배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8-9절은 질그릇같은 성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같이>**"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곧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절<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질그릇같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것 때문에 욱여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꺼꾸러뜨림을 당하는데, 바울은 지금 뭘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항상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볼품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게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가 아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 곧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삶 속에 증거하고 그 보배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9월 8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430장
성경봉독		삼하 6:1-12
설 교	**이스라엘의 참 왕, 야웨**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진정한 왕은 야웨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 그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멈추시면서 선하신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1.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옮기는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좌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좌소인 언약궤가 70년간 외면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는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를 지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거의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어디까지나 '대리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야웨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으로서 참 왕을 섬기는 작은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좌소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야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더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이스라엘 백성의 게으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야웨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정작 왕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멈추셨는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야웨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삼만 명의 무리를 데리고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았다는 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교적'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불법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로 그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에 했던 방법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모르는 블레셋과 똑같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싣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들로 언약궤를 떨어뜨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웃사가 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즉시 웃사는 죽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의도도 좋고, 웃사의 행동 역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웃사를 죽이신 일은 과격해 보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의도와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3. 다시 언약궤를 옮기라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약궤를 잠시 두었던 오벧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복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군사들을 대동한 것도 아니고,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싣지도 않았습니다. 구별된 레위인들로 언약궤를 메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언약궤)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란 걸 알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무지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왕 다윗도 그랬고, 오랫동안 언약궤를 집에 두었던 웃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의 이동을 멈추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 곧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을 섬기는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시작도, 과정도, 결국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비록 소가 끄는 새 수레처럼 빠르고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올바르고 확실한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작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그 결과에 있어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2024.09.08.(성찬가족심방) 고후4:7-11(신,289)

"보배가 담긴 질그릇"

멋진 양복을 입은 신사가 허름한 종이가방을 들고 가다가 그 가방이 시궁창에 빠지자 종이가방을 꺼내기 위해 주저하지도 않고 시궁창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은 참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저 사람, 바본가? 저 종이가방이 뭐 중요하다고 양복을 다 버려가면서 시궁창에 들아가노?"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저 가방에 뭐가 들어 있길래 양복이 더러워지는 것도 고사하고 뛰어드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합니다.(직업, 학벌, 재산, 차...)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경력이나 성경읽기, 기도, 또 봉사나, 헌금하는 것등을 보고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혹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비록 겉은 허름한 종이가방이라도 그 속에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다면 가치가 있습니다. 값비싼 가죽가방이라도 그 속에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라면 그 가방은 다들 꺼려할 것입니다. 가방의 가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교의 주제는 **"성도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이다"**입니다.

1. 성도라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를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겉은 보잘 것 없는 질그릇이지만 속에는 엄청난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곧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7a) 4-6v의 말씀을 보면 그 보배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 보배가 이 천하디 천한 질그릇 속에 담겨지신 것입니다.

과연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릇인 사람은 범죄하여 참 더럽고 볼품없는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릇에 다시 엄청난 것을 담아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허름한 종이가방에 값비싼 보석은 도무지 안 어울리지만, 그 보석을 종이가방에 넣는 순간 종이가방은 엄청 귀한 가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으로서는 정말 가치없고 볼품없는 질그릇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이 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게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질그릇이 어떻게 존귀한 그릇이 되어집니까?

사실 질그릇은 다른 그릇에 비해 못났기도 하고,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담금질을 많이 하지 않아 조금만 충격이 가도 잘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을 가치있게 여기거나 또 좋은 반찬을 담는 일은 드뭅니다. 또 질그릇에 금